

건조물 문화재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혼이 오롯히 담긴 귀중한 자산으로서 한 번 소실되면 영원히 원형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전대비책이 중요하다. 특히 유형문화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찰 등 건조물 문화재의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목조로 되어 있어 예방 및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리자나 소유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여 온전한 형태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기획특집

01

# 건조물 문화재 화재예방 및 보호방안



글 | 김상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시설서기관

## 머리말

우리나라의 건조물 목조문화재는 국보 22동, 보물 118동, 중요 민속자료 중 가옥이 138동이고 민속마을은 5개 마을이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 외 많은 문화재 중에서 건축류,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민속자료, 천연기념물 등이 있는데, 이들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므로 이들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984년 소실된 전라남도 화순 소재 쌍봉사 대웅전이나 2005년 4월 5일 소실된 강원도 양양군 소재 낙산사 화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재는 한 번 원형을 잃으면 영원히 그 원형을 회복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건조물 문화재의 화재로부터 보존되기 위해서는 사전대비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건조물 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건조물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

### 가. 진입로 개설 및 확장

건조물 문화재의 화재는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 진입 인력이나 장비의 신속한 화재현장 진입을 위해서 중요 문화재 지역에는 진입로 개설이나 확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들 도로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소방차의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나. 주변 수목 벌채

사찰에 있는 건조물은 2005년 4월 15일 낙산사 화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 산불에 대해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산불로부터의 건조물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수목높이의 1.5배 이상은 벌채하여 건조물에 산불의 인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 수목 벌채나 벌목시에는 사찰문화재의 주변 환경, 문화재 영향 평가, 사찰수행 공간 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다.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및 동산문화재 소산 매뉴얼 작성

문화재 지역은 주변지역이 도심으로 개발 혹은 폐사가 되거나, 위치상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들 문화재의 일부는 화재 발생시에 소방차나 진압인력의



접근이 매우 어려우므로, 사전에 인근 소방방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위급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미리 갖추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산 가능한 동산 문화재와 소산 불가능 문화재에 대한 유사시 대피 매뉴얼을 작성하고 화재 발생시에는 이들 기관의 협조를 받아 미리 대피할 수 있어야 하겠다.

**라. 소화장비 비치**

주요 문화재 주변에는 소화전, 방수총,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 소화장비를 꾸준히 설치하여 작동이 잘 되도록 하고 평소에도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방연제도포, 전기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마. 자체 소방대 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건조물 문화재는 대부분 건조된 상태의 목재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므로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찰문화재 지역은 소방관서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도착할 시에는 문화재가 전소되었다고 보편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 문화재의 지역에는 자체 소방대를 편성하여 초기진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평소에 진압장비 확보와 소방훈련 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바. 소화수 확보 대책 마련**

현재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약제는 통상 물, 가스, 액체포말소화제, 분말제 등이 있으나 가스나 액체포말계통의 소화약제는 사용시간에 한계가 있고 평소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유사시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소방차 1대가 물을 뽑기 시작하면 약 5분 정도 만에 전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최소 20분 이상 쓸 수 있는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화재시에는 정전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자체 발전기 등을 사용하여 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보호각 등 인화물 사전 제거**

옥외에 있는 주요 석조문화재나 철기류 문화재는 보통 보호각 속에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호각은 사찰환경을 고려하여 보통 목재로 지어져 있어 화재시에는 보호각 속에 있는 문화재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2005년 4월 5일 발생한 낙산사 화재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각 속에 있는 동종(보물 제479호)이 열에 의해 용해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각을 사전에 해체하든지 구덩이 매몰, 모래주머니 쌓기 등을 여건에 맞게 조치하면 귀중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다.

보호각 해체는 장비나 인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근 소방방재청이나 군부

대와의 협조체계를 평소에 구축하여 두었다가 유사시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보호각을 사전에 해체하여 불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문화재가 소실되는 것보다는 경제적 손실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보면 된다.

문화재청에서는 2005년 5월 충북 영동군 소재 영국사 인근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영국사 비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각을 미리 해체하여 화재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였고 다행히 산불이 진압되어 보호각 해체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나, 이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중요 문화재 주변에는 인화물질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청소를 해야 한다.

#### 아. 중요 문화재에 대한 실측도, 문양모사도, 탁본 등 작성보관

문화재는 원형이 한 번 훼손되면 영원히 그 원형을 복원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평소에 실측도, 문양모사도 작성과 탁본 등을 하여 보관하여 두면 향후 원형 복원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되었을 시는 비록 문화재적 가치는 상실되었을지 모르나 가구수법, 양식, 문양, 공법 등은 후세에 반드시 물려줄 수 있도록 복원을 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 사진. 화재 후 낙산사 전경

#### 맺. 음. 말.

이상에서 진입로 개설 및 확장, 주변 수목 벌채, 인근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동산문화재 소산 매뉴얼 작성, 소화장비 설치, 자체 소방대 편성 및 소방 훈련, 교육실시, 유사시 대비 소화수 확보 대책강구, 보호각 등 인화물 사전제거, 중요 문화재에 대한 실측도, 문양모사도, 탁본 등 작성 보관과 같이 사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하지만 이에 앞서 관리자나 소유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우선되어야 문화재가 온전히 보존되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때문에 문화재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 엄금과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